

새해 2007년을 맞아 〈문화예술〉에도 희망찬 해가 되기를



새해 2007년이 환하고 따뜻한 해맞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세상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소망도 더불어 솟아나고 있습니다. 어제와 다른 없는 해를 맞으면서 그것을 2007년의 새해라고 꼽는 것은 같은 해맞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새롭고 또 새삼스러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달력을 새 날짜로 넘기는 일은 곧 우리의 지난 일과 묵은 마음을 쫓혀 넘기고 새 희망과 그를 위한 새로운 마음다짐을 끌어오기 위한 의식(儀式)입니다. 소망의 성취를 위한 변화와 전환은 이 의식의 절차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처럼, 우리나라 곳곳이 이렇게, 힘차고, 밝고 평화로우리란 믿음이 여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07년 새해에는 더욱 뜻있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며 반가운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문화예술이 더욱 풍요롭고 신선하며 좋아지도록 애쓰겠습니다.

이러기 위해 우리 위원회는 네 개의 새해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기초예술의 가치를 넓히는 일,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일, 사업 경영방식을 효과적으로 바꾸는 일, 내부역량을 기르는 일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넓히기, 높이기, 바꾸기, 기르기의 작업을 통해 ‘함께하는 문화, 봉사하는 예술’을 ‘나눔과 도움’의 방식으로 일구어내려 합니다. ‘조용한 변화’를 향한 우리의 이 시도는 우리 스스로만이 아니라 예술가와 문화인들,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하는 우리 국민들과 사회 모든 분들의 마음씨주심 속에서야 보람 있게 실현될 것입니다.

모쪼록 2007년이 〈문화예술〉에도 희망찬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문화예술계의 모든 분들에게 새해가 즐겁고 평화로운 나날로 축복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007년 정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김병익